

###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어떻게

# 설레는 240만 재외동포... '캐스팅 보트' 부상하나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19세 이상 재외국민 유권자가 240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당의 비례대표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기 대선에 박빙의 구도로 간다면 재외국민의 표심은 대권의 향배를 결정할 캐스팅-보트 역할이 가능해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다 해외 공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 제도 보완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투표율 높을수록 차기 총선·대선 영향력 상상초월**  
**여야 표심확보 쟁결음...선거관리·제도보완 등 시급**

◇재외국민투표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영주권을 얻은 국민이나,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주재원 등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렸으며 국회는 지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지난 1972년 유신정권이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이후 무려 40년 만에 참정권이 부활된 셈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재외국민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121만9천명을 포함, 모두 286만9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재외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09만8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본이

59만1000명, 중국 41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의 재외국민이 210만2000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43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북미 122만명, 유럽 10만3000명, 중남미 7만4000명, 중동 1만3000명, 독립국가연합(CIS) 1만1000명, 아프리카 9000명 등의 순이다.

선관위는 현재 재외국민 현황을 토대로 19세 이상의 유권자 수가 2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캐스팅-보트 가능성하나 =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유권자 수가 240만명에 이른다는데서 여야가 각각 39만 표, 57만 표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 투표율이 20~30%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가더라도 투표 절차 등으로 일각에서는 10%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율이 3%대에 머무르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 =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부정행위 등 선거관리가 여의치 않다.

중앙선관위는 해외 166개 공관에서 실시될 선거관리를 위해 오는 4월 재외선거



지난해 11월24일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모의 재외국민선거 개표'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시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 55명을 파견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투표제도 보완도 시급하다. 현행대로 재외공관에서만 투표를 허용할 경우 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교민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하루를 꼬박 보내야 하는 현실이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의 경우 공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을 찾아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10시간 이상 자동차로 운전해야 하는 현실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해외파병 장병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공관이 없는 곳에서는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여야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당리당략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편투표만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인터넷 투표

■ **신청·신고 대상자**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 취득자·영주 목적 외국거주자가 포함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권자 신청·신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영주권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일시체류(예정)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 **신청·신고 대상자**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 취득자·영주 목적 외국거주자가 포함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권자 신청·신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영주권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일시체류(예정)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까지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기성고 '세계한인민중회의' 수석부위원장

## "높은 투표율을 위해 제도 보완"

재외국민 선거가 차기 총선과 대선에 도입되면서 민주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재외국민 정책 및 선거 총괄 조직인 '세계한인민중회의'의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세계 각지를 뛰고 있는 김성곤 의원(여수 갑)에게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의 의미와 영향은.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외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고 권익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외국민에게 국가 및 문화적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가 총선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투표율이 관건이다. 16대와 17대 대통령선거는 30만~50만 표 대에서 당락이 결정된 바 있다.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약 240만 명으로 추산된다. 10%의 투표율만 나타나도 차기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됐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재외국민은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 번이나 직접 방문해야 한다. 특히, 공관이 멀거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를 사실상 어려워 '무늬만 선거'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 및 인터넷 투표 도입, 순회투표소 설치, 투표시간 연장, 선거 관리 등 보완책을 올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6대 4 정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적은 없다. 결국, 선거기간 동안 형성되는 민심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다.

-해외 호남향우회의 역할은.  
▲해외에 나가서 동포들과의 모임을 가지면 호남 및 충청향우회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민주당의 정진을 인종하고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분들이 많이 힘어주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는.  
▲그동안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의 주요 도시를 찾 차례로 방문하며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주당의 정책 등을 설명했다. 전 세계 160여 해외 공관을 중심으로 한 세계한인민중회의 결성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누구에게 유리할까? 재외국민 보수성향 강해 야당 다소 불리할 듯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여와 야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

일단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인 여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의 일반적 정치 성향이 진보보다는 보수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외국민 유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북미지역에서 실시한 정당 선

호도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6 : 4 정도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며 변별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

자나 유학생, 주재원 등 비교적 젊은 세대들에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지도에서는 여당에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정당 선호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와 장관 겸직 의원을 제외한 소속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재외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각 대륙별로 국회의원들을 배치, 재외국민 유권자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기존의 재외동포 사업추진단을 '세계한인민중회의'로 확대 개편하고 재외국민 중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당연직 의장을, 김성곤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세계한인민중회의'는 1만명 이상의 재

외동포가 거주하는 해외 공관을 거점으로 지부를 조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재외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재외국민 가운데서 2명 정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들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자신의 재외국민 거주 지역에 거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6기)
개강일시	· 월요일 주간반 : 2011. 2. 28(월) 09:00 · 아카데미 : 2011. 2. 28(월) 18:00
모집기간	2011. 1. 17(월)~3. 04(금)
수업기간	2011. 2. 28(월)~2011. 6. 16(목) (15주 90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 주·아카데미 각 30명 · 심화반 : 주·아카데미 기초진급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간반 09:00~12:30 · 아카데미 18:00~21:30
수강료	₩36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 062)530-3873~5 · 지도교수 : 010-2611-1171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 제일건강 발목 펌프 운동봉

당신은 약을 전혀 먹지않고 불로장생(무병장수)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1일 3,000회(소요시간약 30분)=10,000보 걷는 효과!!

2011년 신제품 목침 겸용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cm 반원목침에 스프링과 소음진동방지대가 장착되어 있어 취침 시는 목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상하면 발목펌프 운동봉으로 평상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펌프 운동기구

- 목재 운동봉 가격 : 39,000원 무료배송!!
- 목침 겸용 가격 : 45,000원 무료배송!!

제일건강 TEL 062-672-2002 H.P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2층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서영섭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2기)	광주교육대학교(제3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2011. 3. 4(금) 09:10 · 오후반:2011. 3. 4(금) 14:10 · 토요일 오전반:2011. 3. 5(토) 09:10	· 목요일 오전반:2011. 3. 10(목) 09:10 · 목요일 오후반:2011. 3. 10(목) 14:10 · 토요일 오전반:2011. 3. 12(토) 09:10 · 토요일 오후반:2011. 3. 12(토) 14:10
모집기간	2011. 1. 18(화)~3. 5(토)	2011. 1. 18(화)~3. 12(토)
수업기간	2011. 3. 4(금)~2011.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1. 3. 10(목)~2011. 8.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금·토요일 각 25명	· 기초반: 목·토요일 각 25명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 09:00~13:00 · 오후반 : 14:10~18:00
수강료	₩340,000 · 광주은행 : 148-107-307803(예금주:광주여대)	₩340,000 · 우체국 : 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자격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자격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